

사설

진정한 국민축제는

— 초파일 봉축행사 준비에 부처

부처님오신날이 꼭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부처님오신날은 본래 우리 민족의 민속명절이다. 불교가 유입되면서 재래민속과 상보적 관계를 가지며 새로운 민속문화를 창조한 대표적인 명절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갖가지 다채로운 행사 가운데 동방, 즉 '밝음'의 민족정신을 실현화시키면서 탄생된 것이 연등행사다. 지혜를 상징하는 해드레 나라, 새벽을 여는 밝음의 정신을 불교의 반야사상과 부합되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민족의 역사 계승과 깨달음을 열어 새롭게 나아가며 현실생활에서의 구현을 위한 '깨달음의 사회화'에 걸맞는 범국민적 축제라 기꺼워야 한다.

이에 행사의 주역이 되는 각 종단과 스님 신도 모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축에 그치지 않는 행사, 모든 국민과 더불어 공감대를 갖고 어둡고 외로운 곳에 연등을 밝히는 봉축 행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한달 앞둔 부처님오신날을 맞는 이시점에서 우선 작은 나눔에서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웃에 연등 나누기다. 연등을 밝히는 의미는 마음에 가려있는 어둠을 밝혀 밝은 마음·밝은 미소·밝은 이웃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다. 부처님 앞 절 마당에 밝혀 복과 지혜를 기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회용컵에 연등을 붙인 작은 연등을 이웃과 나눠 자축차에서도 책상위에서도 부처님오신 뜻을 기리도록 하자. 다시말하면 화려한 대형축제 보다는 이렇듯 구석구석에 자비의 연등을 달며 초파일은 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연등축제'로 이름을 바꾸어 벌일 제등행진을 명실상부한 문화행사로 강화해야 한다.

산화와의 과정에서 도시는 대단히

복잡한 교통지옥으로 변했다. 각종 시위의 행렬조차도 부대껴야 하는 시민들에게 연등행렬이라고 해서 모두가 즐겁게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회용 전지행사로써의 효과보다 거리 곳곳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등을 달아 시민은 물론 외국관광객들도 거리를 오가며 아름다운 등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동시에 사찰 마당이나 공터 혹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개인의 마음에 심어져 시민문화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봉축위의 구성이다.

봉축위가 중앙에만 있어 행사의 일관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않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의 중심과 취향에 맞는 행사를 구성하여 포교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중앙은 지방에 긴밀한 연계와 추진력으로 특성화를 장려하여 거국적 행사로 되도록 독려해야 한다.

넷째, 인터넷을 통한 봉축행사의 세계화이다. 이제 세계는 모두 안방에 있다. 급변하는 정보의 신속한 활용을 위한 인터넷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올해부터 인터넷에 봉축홈페이지를 띄운다고 한다. 한국불교의 특성, 혹은 한국민족의 문화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세계적 통신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모든 생명있는 자의 축제일이다. 참으로 좋은 날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한 마음에 깨우쳐 지고, 한 등의 밝은 빛이 온 우주에 밝혀질 때 깨달음의 사회화는 실현될 것이다.

날마다 좋은 날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거듭 태어나게 할 때 그 값이 커진다. 국민들은 화려한 쇼 보다는 조촐한 초파일 연등을 보다 종교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열린 마당

사찰 도서관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은 제31회 도서관주간이고 4월 23일은 올해 처음 제정된 '세계 책의 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도서관 개척, 독서교실 운영 등 각종 책관련 행사가 펼쳐지고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동도 활발하다. 교계에서도 작

게는 수백권부터 많게는 만여권까지 다양한 불서를 구비한 사찰 도서관이 점차 늘고 있어 비문신행의 기초다짐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사찰도서관 현황과 이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 (편집자 주)

이용률 저조...관리전산화·홍보 필요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장>

부산불교교육원 도서관은 지난 90년 4천5백여 권으로 출발해 현재 5천여 권의 불교도서와 슬라이드, 비디오, 각종 단행본 등 모두 7천여 불교자료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 대상자의 제한은 없으나 주로 교육원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적은 수지만 일반인들도 불교서적을 열람·대여하고 있다. 이용자는 한 달 평균 2백여명, 대여권수는 4백여 권으로 한사

람당 2권꼴로 대여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기초교리·사찰예절·불교상식·부처님 일대기 등 내용이 쉬운 책들이 많이 읽히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이용률은 월 평균 10여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불교교육원 도서관은 교육원생뿐 아니라 지역민 등 일반인들에게도 더 많은 이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각종 홍보는 물론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현재 도서관 운영의 최대

절마다 도서관 운영예산 책정해야

신도들 보시금 도서구입 통해 회향

그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실 역할과 나아가 친목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도들의 교육·교양과 정보 및 지적 욕구 충족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폭넓은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책의 비치가 우선돼야 한다.

교양서, 사상서, 문학서적에서 최근의 정보서적과 잡지의 비치도 필요하다. 편역지도 모호한 법보시용 경전만이 전족 갖춰 있다거나 조잡하게 인쇄된 교리서나, 신간성이 낮은 책만 있는 도서관이라면 이용자가 없을 수 밖에

이철교 <동국대 경주도서관 열림과장>

정보화시대가 될수록 그에 걸맞는 도서관이 갖춰져야 하며 도서관들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나 각 자치단체가 이동문고 등을 마련,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각종 자료서비스에 힘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각 사찰도 도서관(자료실)을 마련해 신도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신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찰(도심포교당 포함)은 종교활동 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와 문화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사찰 도서관은



없는 유명무실한 도서관인 것은 볼품없다. 사찰도서관도 체계적인 운영지침에 다양한 종류의 책이 비치되고 계속 보완돼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찰 예산에 일정한 책구입 예산 책정이 반드시

바른신행 확대공간... "장서 다양화"를

정반야심 <삼천포교인 신도>

몇년전부터 우리 절에도 조그마한 도서관이 생겼다. 규모면에서 보자면 일반도서관에 비해 보잘것 없지만 불 법 승 삼보가 충만한 사찰에서 부처님 말씀이 가득 든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큰 행복이다.

어린이 불교간화에서부터 동화 수필 소설 경전에 이르기까지 불교관련서적을 한군데 모아 우리 불자들이 쉽게 불서를 접

할 수 있게 해 책 읽기 좋아하는 나

는 우리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사실 우리절이 집에만 있는 주부들은 시내에 있는 대형서점이나 조계사 근처 불교서점을 가지 않고는 동네 서점에서 원하는 불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요즘 늘어난 도서대여점에도 불교 서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가끔 <현대불교신문>에서 안내하는 불서관련 기사를 보면 읽고 싶은 책이 있

지만 빠듯한 가계부로서는 아쉬울 때가 많다.

이런 점에서 사찰도서관은 꼭 필요할 것 같다. 같은 책을 서로 돌려보고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보다 불서를 많이 읽는 다른 불자들에게 자극도 받는다. 불서읽기는 스님법문을 재미있게 하고 바른 신행을 확대시켜 준다.

그러나 사찰에 비치돼 있는 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불교간화나 동화가 너무 빈약해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새싹별 자비를 위한 부처님 말씀

불효란...

부모를 거역하고 묻는 말에 복순하고 눈을 누러이며 욕까지 퍼붓는다. 부모의 험뵈고 배고픔을 모른 채하여 저만 잘 먹고 잘 먹으려고 한다. 이런 자들은 지옥이나 아귀, 혹은 축생의 세상에 떨어질 것이다. (부모은중경)

우리는 선우  
공음 대표 남지심 박광서

현대만평



부처님 자비를 세상에...

목어

어느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이살리로 가다가 이월강에 이르렀다. "아나야, 저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가보아라." 아나다가 갔다 와서 부처님께 말했다.

"말, 밥, 돼지, 개 등 각종 동물들의 머리가 백개나 달린 괴상한 물고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물고기가 있는 강 아래로 내려가서 물고기에게 물었다.

"네가 바로 가비리야." "그렇습니다." "너를 가르친 네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비죽이에 떨어져 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비구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부처님께 영문을 물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위해 일러줄 터이니 잘 듣고 명심하여라. 옛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문이 되는 척 하여 밥을 다 배운후 집으로 오라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대로 사문이 되어 경을론을 모두 읽고 이치를 통달한 후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물었다. '이제는 이기겠느냐.' '학문으로 이길 수 있지만 선정의 경

금 어디 있는가.' "이비죽이에 떨어져 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비구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부처님께 영문을 물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위해 일러줄 터이니 잘 듣고 명심하여라. 옛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문이 되는 척 하여 밥을 다 배운후 집으로 오라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대로 사문이 되어 경을론을 모두 읽고 이치를 통달한 후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물었다. '이제는 이기겠느냐.' '학문으로 이길 수 있지만 선정의 경

해했다. 가비리는 그 과포로 지금 머리가 백개나 되는 물고기의 몸을 받게 되었느니라." <가비리백무품>에 나오는 이야기는 에누리 없는 인과와 함께 '현재의 자기 모습에서 과거와 미래를 보라'고 일러준다. '사과상사 속의 1억원'을 보면서 관련된 이들이 받은 업의 무게가 자못 궁금했다. 더불어 20만냥 값의 구슬에 눈이 먼 아내의 청에 못이겨 위증을 한 재판관이 눈·귀·혀·손발이 없는 두루뭉수리 몸을 받은 이야기도 떠올랐다.

궁금한 업의 무게

23일 책의 날을 맞아 '거액비자금 은닉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 부처님의 인과법이 담긴 불서를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결의

우리는 사북 고한 지역 정제를 되살리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의 시행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한백산 정암사 만항지구 개발은 관광지구로 선정되기로는 적당히 두지가 아니라 만항지구 개발을 반대한다.
- 한백산은 천연 자연 보호지역이며 개발은 대규모 산림 훼손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이 지역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반대한다.
- 한백산은 자연 보호 어종인 얼룩머리가 서식하고 있는 자연 보호지역이며 개발은 희귀어종인 얼룩머리 멸종을 물론 정암사와 사북 고한의 수질오염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개발을 반대한다.
- 이 지역 개발이 보물인 수마노탑의 보존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반대한다.
- 이 지역 개발은 가까운 천년고찰인 정암사 적멸보궁의 수행과 기도 등 종교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개발을 반대한다.
- 위의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합백산 정암사 만항지구 위탁센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 위원장 김현해(오대산 월정사 주지)
- 부위원장 문일봉(천은사 주지)
- 간사 이원행(월정사 총무)
- 대채위원 장상열(국형사 주지)
- 전삼지(구룡사 주지)
- 박종영(봉복사 주지)
- 이청우(낙가사 주지)
- 이혜운(법왕사 주지)
- 이현우(정암사 주지)

합백산 정암사 적멸보궁 만항지구 개발을 반대하기 우리의 결의

금년 4월부터 발효되는 사북 고한 특수지역 지정은 중심으로 환영하며 이 조치로 사북 고한의 경제가 재도약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돌아보건대 사북 고한은 석탄을 생산하여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하였으나 더구나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근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석탄생산을 해오신 노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한국의 주요인 에너지원이 석유와 가스도 급격히 대체되면서 석탄의 생산은 감소되어 사북 고한의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합백산 정암사 적멸보궁 만항지구 개발을 반대하기 우리의 결의

정부는 이러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북 고한 지역을 관광특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항지구의 선정은 대규모의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부지의 선정에서부터 설계전반에 걸쳐 엄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킬 많은 계획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만항지구 개발은 부지선정에서 계획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만항지구는 스키장으로 정사가 급하고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에 유지를 위하여 맹독성 농약 사용하게 되면 수질 오염이 야기되어 만항제 아래에 위치한 사북 고한 주민의 식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태백산맥의 합백산은 민족의 정기가 이어지는 명산입니다. 합백산의 정상에서 뿜어 나오는 정기는 사북 고한과 태백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는데 만항지구가 개발되면 대규모 산림훼손은 물론 합백산 정기를 해쳐 사북 고한의 장래 기운을 쇠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합백산 줄기에 자리잡은 정암사는 지금으로부터 1천3백년전 신라시대 제왕실사제사 장전하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교의 성지인 가운데서도 성지인 적멸보궁인 곳입니다. 정암사는 예로부터 수행과 기도도량으로 천만불자의 가슴에 아로새겨져 왔으며 우리가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민족의 유산입니다. 현재 정암사는 맑은 물에서만 사는 얼룩머리의 자연보호 구역이자 천연 자연보호림보존지역이며 보물 410호인 수마노탑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합백산 정암사 적멸보궁 만항지구 개발을 반대하기 우리의 결의

다만 만항지구가 개발되면 가까운 천년고찰 정암사의 주변환경이 황폐화됨은 물론 기도와 수행의 도량으로 자리하고 있는 정암사의 장래는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2천만불자는 사북 고한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설계가 보다 더 적합한 부지에 선정되어 지역경제 건설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만항지구의 개발은 관광특수지역으로 발전시키기에는 문제가 많고 아울러 사북 고한의 경제 재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대산월정사, 본말사 주지일동, 오대산월정사, 본말사 주지일동, 오대산월정사, 본말사 주지일동